

랭전종식후 이스라엘의 《대유태제국》조작책동과 그 위험성

부교수 정 광 선

1. 서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스라엘의 침략야망을 짓부셔버리지 않고서는 중근동나라들의 독립과 령토완정, 진보를 이룩할수 없으며 공고한 세계평화와 안전을 보장할수 없습니다.》(《김일성전집》 제84권 48페이지)

19세기말부터 팔레스티나땅에 기여들기 시작한 유대복고주의자들은 1948년에 《이스라엘국가》를 조작한데 이어 그후 여러차례의 중동전쟁을 통하여 빼앗은 아랍나라들의 령토를 영구강점하고 나아가서 더 많은 령토를 타고앉아 기어이 《대유태제국》을 조작하기 위하여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다.

이스라엘이 조작하려는 《대유태제국》이란 고대이스라엘-유대왕국이 차지하였던 령역을 포괄하는 유대인들의 국가 다시말하여 팔레스티나와 요르단강서안지역, 골란고원을 비롯한 넓은 지역을 통합한 《강력한 이스라엘국가》를 말한다.

이스라엘의 《대유태제국》조작책동은 이스라엘-유대왕국이 세워졌던 지역에는 반드시 유대족만이 살아가는 국가가 세워져야 하고 이 지역에서 일체 비유대적인 종족들은 사라져야 한다는 강도적인 인종주의의 발현이며 유대인국가가 멸망한 때부터 유대인들이 겪어온 《수난》의 력사를 아랍인들에게도 강요하여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한다는 복수주의적야망의 발현이다.

인종주의적이며 복수주의적인 이스라엘의 《대유태제국》조작책동은 중동지역에 끊임 없는 류혈적인 충돌과 전쟁을 몰아왔으며 오늘도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도 커다란 위협을 주고있다.

이 글에서는 랭전종식후 보다 악랄하게 감행된 이스라엘의 《대유태제국》조작책동과 그 위험성을 밝히려고 한다.

2. 본론

국가조작후 집요하게 이어온 이스라엘의 《대유태제국》조작책동은 랭전종식후 보다 악랄하게 감행되였다.

랭전종식후 이스라엘의 《대유태제국》조작책동에서 기본으로 되는것은 점령한 아랍령토에 대한 영구강점책동과 주변나라들과 인민들에 대한 군사적침공 및 테로의 강화였다.

이스라엘은 꾸드스를 저들의 《영원한 수도》로 만들며 정착촌을 확대하여 여기에 유대인이주민들을 더 많이 정착시키는것과 함께 안전장벽을 건설하여 점령한 아랍령토를 영구강점하며 주변나라들에 대한 군사적침공을 통하여 더 많은 아랍령토를 차지하고 야수적인 테로학살만행을 감행함으로써 팔레스티나인민들을 비롯한 아랍나라들의 독립과 령토완정에 대한 의지를 꺾어버리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2. 1. 점령지영구강점책동

랭전종식후 이스라엘은 점령지영구강점책동에 악랄하게 매달렸다.

이스라엘은 우선 꾸드스를 저들의 《영원한 수도》로 만들기 위한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렸다.

이스라엘이 꾸드스를 저들의 《영원한 수도》로 만들려는것은 꾸드스를 수도로 독립국가를 창설하려는 팔레스티나인민들의 독립의지를 꺾고 강점한 꾸드스를 중심으로 기어이 《대유태제국》조작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있는 꾸드스는 이슬람교, 그리스도교, 유대교가 모두 《성지》로 간주하고있는 도시이다.

B.C.1020년 팔레스티나인들을 몰아낸 땅에 이스라엘-유대왕국이 세워지면서 유대교의 《성지》로 되었던 꾸드스는 이후 페르샤와 그리스-마케도니아, 로마의 지배밑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로마가 그리스도교를 합법화하면서 335년부터는 그리스도교의 《성지》로 간주되어왔다. 그후 637년에 팔레스티나지역은 아랍인들에게 정복되어 아랍화되었으며 662년이후에는 이슬람교의 《성지》로 되었다.

이처럼 여러 종교의 《성지》로 간주되어온 꾸드스는 제국주의자들의 공모결탁의 산물인 유엔총회 제2차회의결정에 의하여 팔레스티나가 분할될 때 《국제관리》에 넘어가게 되었으며 제1차 중동전쟁이 끝난 뒤에는 다시 요르단과 이스라엘에 분할되어 도시의 서부지역은 이스라엘침략군대가 강점하고 동부지역은 요르단이 차지하게 되었다. 그후 제3차 중동전쟁을 도발한 이스라엘은 동부꾸드스까지 강점하였다.

그러나 팔레스티나인민들은 꾸드스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국가창설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았으며 이들의 투쟁은 여러 아랍나라들뿐만아니라 세계의 많은 나라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1950년부터 저들의 통치기관들을 텔 아비브로부터 꾸드스에 옮겨다 놓고 이 도시를 저들의 수도로 주장해오다가 1980년 7월에 와서는 이 도시를 이스라엘의 《항구적이며 불가분리의 수도》라고 선포하고 수도를 이 도시로 옮길데 대한 결정까지 채택하였다.

아랍나라들은 물론 수많은 이슬람교국가들이 이스라엘의 처사에 강한 반대를 표시하였으며 1981년 8월에 열린 유엔안보리사회에서도 꾸드스를 수도로 선포한 이스라엘의 조치를 무효로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기의 립장을 끝끝내 철회하지 않았으며 랭전종식후에도 꾸드스를 저들의 《영원한 수도》로 만들기 위한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렸다.

1993년 7월 이스라엘수상은 꾸드스가 이스라엘의 《불가분리의 영원한 수도》라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1998년 6월에는 이스라엘정부가 《대꾸드스계획》이라는것을 결정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꾸드스에서 이스라엘의 관할권은 동부, 북부, 남부로 확대되어 꾸드스주변에 있는 요르단강서안지역의 8개 유대인정착촌들까지 꾸드스에 소속되게 되어 있다.

《대꾸드스계획》이 아랍인민들뿐만아니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한결같은 반대에 부딪치고 꾸드스에서 침략무력을 철수할데 대한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갔지만 꾸드스를 기어이 저들의 《영원한 수도》로 만들려는 이스라엘의 야망은 변하지 않았으며 그 실현책동은 보다 악랄해졌다.

2005년 2월 이스라엘수상 샤론은 꾸드스에서 이스라엘군이 철수하는것은 생각할수 없는 문제라고 하면서 《꾸드스는 유대인들의 영원한 수도로 의연 통일되어있을것》이라고 떠벌이었다. 2009년 5월에는 이스라엘대통령 페레스가 《예루살렘(꾸드스)의 날》에 즈음한 국가의식이라는데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내놓고 다른 도시를 절대로 수도로 하지 않을것이다. 예루살렘은 결코 다른 국민의 수도로 되지 않을것이다.》라고 떠들어댔으며 이어 수상 네타냐후도 《통일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다. 예루살렘은 언제나 우리의것이였으며 또 언제나 우리의것으로 남아있을것이다. 예루살렘은 결코 다시 분할되거나 분열되지 않을것이다.》라고 력설하였다.

여러차례에 걸쳐 꾸드스를 저들의 《영원한 수도》로 한다는 법안을 발표해온 이스라엘국회는 2018년 1월에 또다시 《꾸드스 전지역을 이스라엘의 불가분리적인 령토》로 공인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며 다른 나라들에 대사관을 텔 아비브로부터 그곳으로 옮길것을 구걸해나섰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팔레스티나로부터 빼앗은 꾸드스를 저들의 《영원한 수도》로 만들어 《대유태제국》조작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이스라엘은 또한 정착촌을 확대하고 여기에 더 많은 유대인들을 이주정착시키는 책동에 보다 악랄하게 매달렸다.

정착촌은 이스라엘이 강점지역에서 아랍인들을 강제로 내쫓고 유대인들을 이주시켜 만들어낸 유대인거주지역과 군사시설들을 말한다.

아랍땅을 강점한 첫날부터 《점령지들에 유대인들을 이주시키면 이 땅도 이스라엘것이 된다.》고 하면서 세계 여러 지역에 흩어져있는 유대인들을 이주시키기 위한 정착촌건설을 시작한 이스라엘은 평전종식후에도 점령한 아랍나라들의 령토에서 정착촌을 확대하기 위한 책동에 더욱 집요하게 매달렸다.

1991년 3월 이스라엘은 1991년말까지 강점지역들에 1만 3 000동의 주택을 건설할데 대한 결정을 발표하고 강점지역에서 정착촌건설을 대대적으로 벌려놓았다. 그리하여 1993년 9월에는 1990년에 비해 강점지역에서 이스라엘의 정착촌수가 150개로부터 180여개로 늘어났다.

1995년에도 이스라엘은 정착촌을 확대할데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해 1월 이스라엘주택성은 1995년중에 3 000만US\$의 자금을 들여 요르단강서안지역에 3 000여채의 주택을 건설할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주택상은 2000년까지 꾸드스에만도 3만세대의 살림집을 지을것이라고 떠벌였다.

이스라엘은 정착촌확대를 위하여 방대한 차관을 끌어들었는데 1998년까지 미국으로부터 끌어들인 원조액만해도 120억~140억US\$에 달하였다. 이스라엘은 이 방대한 자금으로 1998년까지 강점지역의 65%에 정착촌을 건설하였으며 2000년까지 3만 6 000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여 강점지역 모든 곳에 정착촌을 건설하기로 하였다.

이스라엘은 저들이 건설한 정착촌들에 수많은 유대인들을 이주시켰다.

1990년 한해동안에만도 이스라엘은 요르단강서안지역에 세운 5 000동의 이동식주택과 골란고원에 새로 건설한 43개의 정착촌에 1만 2 400명의 유대인들을 이주시켰다.

1991년에 강점지역에 정착한 유대인들의 수는 요르단강서안지역에 9만명, 동부꾸드스에 12만명, 가자지대에 5 000명에 달하였으며 1993년에 이르러 요르단강서안지역과 가자지대의 《정착촌》들에서 살고있는 유대인의 수는 13만 6 415명에 달하게 되었다. 이 수자는 1992년보다 7.3% 늘어난것이고 1987년 이 지역에 있던 정착민들의 수보다 약 120% 늘어난것이었다.

이스라엘은 강점지역에 유대인들을 대대적으로 이주시키기 위하여 강점지역 정착민들에게 특별수당금으로 소득세에서 7%를 삭감해주고 정착촌들의 주택값을 풀색선(이스라엘을 강점된 요르단강서안지역과 갈라놓는 《국경선》)안에서보다 3분의 1이상 낮게 정하는 등 여러가지 특혜조치까지 취하였다.

그리하여 2000년에 이르러 점령지역에 이주한 유대인이주민수는 28만명으로부터 40만명으로 늘어났다.

이스라엘의 정착촌확대와 정착책동은 새 세기에 이르러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었다.

새 세기에 들어와 이스라엘은 강점지역에 있는 정착촌들을 확대하고 거기에 더 많은 유대인들을 끌어들었다.

2005년 6월에 요르단강서안지역에 정착한 유대인수는 24만 6 000명에 달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2004년 6월부터 1년동안에 이 지역에서 유대인정착민수가 1만 2 800명 늘어났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이스라엘의 집요한 유대인정착책동으로 하여 2010년에 이르러 요르단강서안지역에만도 51만 7 770여명이 정착하게 되었다.

그후 정착촌확대와 유대인정착책동은 계속되었는데 이스라엘은 2014년에 들어와서도 편이어 요르단강서안지역과 동부구드스에 도합 4 400채의 살림집건설을 진행할데 대하여 결정하였으며 2016년에는 국회에서 요르단강서안지역의 팔레스티나땅에 허가없이 건설된 수십개의 이스라엘정착촌들을 합법화하고 이 지역에서 팔레스티나땅을 더 많이 강탈하는것을 허용한 법수정안까지 통과시켰다.

2018년에도 이스라엘은 구드스와 그 주변의 4개 지역에 1만 4 000여동의 유대인살림집을 새로 건설할데 대한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착촌확대와 정착놀음을 계속해나갔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랭전종식후 정착촌을 확대하고 거기에 수많은 유대인들을 정착시켜 점령한 아랍령토를 영구강점하기 위한 책동에 악랄하게 매여달렸다.

이스라엘은 점령한 아랍령토를 영구강점하기 위한 책동의 한고리로 안전장벽건설놀음도 벌려놓았다.

안전장벽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티나《테로분자》들의 《공격》을 막는다는 구실밑에 아랍나라들과의 접경지역에 콘크리트벽과 전기철조망으로 구축한 분리장벽이다.

《테로방지》의 미명하에 이스라엘이 강행하고있는 안전장벽건설은 강점한 아랍땅을 분렬시켜 영구강점하려는 기도의 발로이며 아랍인들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엄중히 유린하는 강도적인 행위이다.

이스라엘이 안전장벽건설에 달라붙게 된것은 랭전종식후 팔레스티나의 독립을 지지하는 국제적요구가 보다 높아가고있는 조건에서 팔레스티나의 독립이 선포되어 국경선이 확정되기 전에 먼저 물리적분계선을 그음으로써 이미 차지한 지역을 영구지배하기 위해서이다. 사실상 안전장벽은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국경》으로서 비법적으로 타고앉은 아랍나라들의 땅을 군사적으로 요새화할수 있는 기반으로 된다.

이스라엘이 구축하는 안전장벽의 총 연장길이는 무려 700km에 달한다고 한다.

이스라엘은 2002년부터 요르단강서안지역에 안전장벽을 건설하기 시작하였으며 2003년 7월에는 약 150km에 달하는 《안전장벽》의 1단계공사를 완공하였다. 여기에는 요르단강서안지역의 북부와 중부를 연결하는 구간과 구드스주변의 구간이 포함되어있다.

그후에도 이스라엘의 안전장벽건설은 계속되었다.

2010년 1월 이스라엘정부는 가자지대의 팔레스티나인들이 예질트의 시나이반도를 통하여 저들의 남부지역으로 《침입》한다고 하면서 예질트와의 접경지역에 《안전장벽》을 건설할것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이 지대에 안전장벽건설이 시작되었으며

2013년에는 에짚트와의 접경연선을 따라 길이가 무려 240km나 되는 《안전장벽》이 완공되었다.

이스라엘은 이에 그치지 않고 2015년부터는 요르단과 접하고있는 연선에 《안전장벽》을 쌓았다. 이스라엘정부는 2015년 6월 남부도시 에일라트에서부터 팀나에 있는 국제비행장까지 새로운 《안전장벽》을 건설할것을 승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7 000만US\$가 훨씬 넘는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여 30km에 달하는 장벽을 구축하였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랭전종식후 점령한 아랍령토를 영구강점하기 위한 책동에 악랄하게 매달렸다.

2. 2. 군사적침공과 테로의 강화

랭전종식후 이스라엘은 아랍령토에 대한 영구강점정책을 실시하는것과 함께 주변나라들에 대한 군사적침공과 테로를 보다 강화해나갔다.

이스라엘이 주변나라들에 대한 군사적침공과 테로를 강화해나간것은 아랍나라들로부터 보다 많은 령토를 빼앗아내는것과 함께 우세한 저들의 군사력을 시위하여 주변나라들로 하여금 무력에 의한 령토완정의 희망을 완전히 꺾고 세계적으로 높아가는 반테로기운을 리용하여 항쟁세력들을 압살해버림으로써 저들의 《대유태제국》조작야망을 기어이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이스라엘은 주변나라들에 대한 군사적침공을 보다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그가운데서 대표적인것이 레바논에 대한 군사적침공이었다. 1991년 6월과 1992년 1월, 1994년 4월 비행기와 땅크를 비롯한 중장비들을 동원하여 폭격과 포격을 감행하는 등 레바논에 대한 끊임없는 군사적침공을 감행해온 이스라엘은 1996년 4월에는 수많은 전투폭격기들과 무장직승기들, 포들까지 동원하여 대규모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결과 1996년 4월 40여차례나 감행된 공습으로 레바논의 27개의 마을들에서 130여명의 평화적주민들이 목숨을 잃고 230여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40여만명의 피난민이 발생하였다.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적침공만행은 새 세기에 들어와 보다 엄중한 단계에 들어섰다.

이스라엘은 2006년 7월 레바논을 반대하는 전쟁을 감행하였다. 전쟁개시후 34일동안에 이스라엘공군은 레바논에 7 000여차례의 공습을 가하였으며 해군은 2 500여차례의 포격을 감행하였다. 특히 이스라엘침략자들은 레바논에서 국제협약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송이폭탄을 꺼리낌없이 사용하여 수많은 민간인들을 살해하는 집단학살범죄, 특대형 인권범죄를 저질렀다.(《조선중앙년감》 조선중앙통신사 주체96(2007)년 336페이지)

가자지대에 대한 공격도 이스라엘의 대표적군사적침공의 하나였다. 2008년 11월에 들어와 이스라엘은 가자지대 중부지역에서 《이스라엘병사들을 랍치하는데 리용될 터널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특수군을 들이밀어 습격전투를 벌렸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적어도 6명의 하마스무장성원들을 살해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하마스도 공격을 단행하였다.

이스라엘은 때를 만난듯이 형식상으로나마 유지되던 정화를 파괴하고 2008년 12월 하마스를 주되는 목표로 하는 본격적인 무력침공을 개시하였다.

이스라엘의 공격작전은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는 하마스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공습단계였다.

12월에 벌어진 1단계작전에서 이스라엘은 가자지대 전역을 대상으로 《F-16》전투기와 직승기, 미싸일, 《GBU-39》신형스마트폭탄을 동원하여 공중타격을 진행하였다.

2단계는 지상작전단계였다.

2012년 1월에 진행된 제2단계작전에서 이스라엘은 룡해공군의 각 병종들과 항공육전대무력을 동원하여 지상과 공중, 해상 그리고 가자지대 전역에서 전면적인 지상공격을 감행하였다.《조선중앙년감》 조선중앙통신사 주체97(2008)년 339~341페이지)

그후에도 이스라엘은 가자지대에 대한 공습을 그치지 않았다.

2012년 3월 이스라엘은 가자지대에 대한 공습을 개시하여 4일동안에만도 20여명의 팔레스티나인들을 살해하고 70여명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2014년 3월에도 팔레스티나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비롯하여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군사적도발을 감행하였다.

2018년 2월에도 이스라엘은 전투기와 탱크를 동원하여 가자지대에 대한 군사적공격을 또다시 감행하여 2명의 팔레스티나인을 살해하고 2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스라엘은 수리아에 대한 군사적침공도 계속 감행하였다.

2013년 1월 이스라엘은 그 누구의 《테로행위》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간판밑에 수리아의 령공에 폭격기들을 들이밀어 무차별적인 공습을 감행하여 무고한 주민들을 살해한데 이어 5월 5일 새벽 수리아의 수도 디마스끄와 주변의 군사대상물들을 공습하였다.

2018년 2월 이스라엘은 디마스끄부근에 있는 12개의 군사대상물들에 대규모적인 공습을 가하였으며 4월에도 비행기를 동원하여 홈스도의 팔미라지역에 있는 공군기지에 미싸일타격을 가한것을 비롯하여 수리아에 대한 야만적인 공습만행을 끊임없이 감행하는 등 군사적침략과 도발책동에 악랄하게 매달렸다.

《대유태제국》조작을 위한 이스라엘의 군사적침공책동으로 하여 아랍나라들의 민족적 자주권은 무참히 유린당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파괴되었으며 수많은 아랍인들이 목숨을 잃거나 피난민으로 전락되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강점당한 팔레스티나땅을 되찾고 자주독립국가를 세우려는 팔레스티나항쟁단체들을 비롯한 아랍인민의 투쟁을 《테로행위》로 결고들면서 그를 진압하기 위한 작전도 미친듯이 감행하였다.

이스라엘은 반테로의 간판밑에 이미 1990년에 팔레스티나애국자들에 대한 살인, 검거투옥을 기본임무로 하는 비밀경찰부대까지 조직하여 아랍인들에 대한 테로행위를 일삼았다. 이에 대하여 1994년 11월 4일 이스라엘 《예루살렘포스트》신문은 이 비밀경찰부대는 아랍인들로 가장한 비밀경찰들을 팔레스티나인들의 마을이나 도시에 깊숙이 침투시켜 지금까지 약 120명의 팔레스티나활동가들을 살해하거나 잡아가두는 만행을 감행했다는 자료를 공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대통령은 비밀경찰부대의 활동을 정당화하면서 이 부대가 《테로》를 반대하는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주요세력으로 되었다느니, 《우리가 평화에 대해 말하고있지만 민족이 강대하려면 이러한 부대들을 계속 활동시켜야 한다.》느니 하는 등의 망발을 늘어놓았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팔레스티나민족해방조직들의 지도적인물들에 대한 테로행위를 보다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1997년 9월 암만에서 하마스정치책임자 할리드 메살에 대한 테로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스라엘은 이어 팔레스티나항쟁조직들의 지도부제거를 노린 암살작전을 계속 감행하였다.

긴급치안각료회의에서 승인된 팔레스티나항쟁지도부성원들에 대한 암살작전계획에

따라 이스라엘은 2003년 8월 무장직승기를 동원하여 하마스의 최고위급 인물인 아부 사나브와 그의 수행성원 3명을 살해한것을 비롯하여 2000년 9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이스라엘이 팔레스티나항쟁지도부성원들을 대상으로 감행한 암살작전은 무려 157차례에 달하였으며 이로 하여 309명의 팔레스티나인이 죽고 627명이 부상당하였다.

그후에도 팔레스티나항쟁조직지도자들에 대한 테로암살만행은 계속되었는데 2004년 3월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정신적지도자인 아흐메드 야썬을 테로하는 만행을 감행한것이 하나의 실례로 된다. 이스라엘은 백주에 가자지대의 한 사원에서 레배를 마치고 나오는 야썬을 미싸일공격으로 살해하였던것이다.

이처럼 평전종식후 이스라엘유태복고주의자들은 《대유태제국》조작야망을 기어이 실현하기 위하여 군사적침공과 테로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2. 3. 이스라엘의 《대유태제국》조작책동의 위험성

이스라엘의 《대유태제국》조작책동은 커다란 위험성을 가지고있다.

그 위험성은 첫째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아랍나라들의 건전한 사회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는데 있다.

이스라엘의 《대유태제국》조작책동으로 중동평화과정이 파탄되고 지역정세는 여전히 긴장해졌다.

평전종식후 변화된 국제정세하에서 아랍나라들은 이스라엘국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를 무력으로 청산하는 방법으로 중동문제를 해결하려던 이전시기와 달리 《땅과 평화를 바꾸는 원칙》에서 이스라엘과 협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땅과 평화를 바꾸는 원칙》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이스라엘이 여러차례의 중동전쟁을 통하여 빼앗은 아랍영토에서 자기 군대를 철수시키는 대가로 아랍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인정해주고 평화적으로 공존해나간다는것이다.

국제사회도 이를 지지해나섰으며 결국 1991년에 에스빠냐의 마드리드에서 중동평화 국제회의가 진행되고 이를 계기로 중동평화과정이 시작되었다. 그후 팔레스티나와 이스라엘사이, 요르단과 이스라엘사이, 레바논과 이스라엘사이 그리고 수리아와 이스라엘사이에 평화회담이 진행되었다.

팔레스티나와 이스라엘사이의 평화협약에 따라 1993년 9월 가자-예리코우선자치협정이 체결되고 1994년 7월에는 팔레스티나민족당국(자치정부)이 수립되었으며 이어 1997년 1월에는 이스라엘이 요르단강서안지역 헤브론시와 농촌지대들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이 지역의 모든 통제권을 팔레스티나측에 이관하였다. 1994년 10월에는 요르단과 이스라엘사이에 아라바국경지역에서 상대방의 자주권과 국경의 인정 및 존중, 협조관계의 발전, 무력사용금지, 의견불일치의 평화적해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요르단-이스라엘 평화조약조인식이 진행되어 두 나라사이에 46년간이나 계속되어온 전시상태가 끝장나게 되었다. 그리고 수리아와 이스라엘사이에 돌란고원의 반환에 관한 문제를 놓고 여러차례의 평화회담이 진행되었다.

이것은 중동의 평화와 발전을 바라는 아랍나라들과 세계평화애호적인 인민들에게 커다란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랍나라들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의사와 요구에 배치되게 꾸드스를 그들의 《영원한 수도》로 선포하고 정착촌을 확대하며 주변나라들에 대한 군사적 침공을 감행하는 등 《대유태제국》조작책동에 보다 악랄하게 매달림으로써 정세를 의연히

긴장으로 이끌어갔다.

결국 중동평화과정은 파탄되고 아랍나라들은 령토완정의 꿈을 이룰수 없게 되었을뿐 아니라 커다란 인적 및 물질적손실을 당하게 되었다.

2000년 9월부터 2003년 9월사이에만도 이스라엘의 만행에 의하여 2 738명의 팔레스티나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7만 1 787채의 살림집과 7 476개의 중소규모공장들, 1만 5 588ha의 농경지가 파괴되었으며 40여개의 팔레스티나인학교가 이스라엘의 군사기지로 전환되었다. 또한 가자지대와 요르단강서안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봉쇄책동으로 팔레스티나로동력의 43.7%에 해당하는 30만 2 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조선중앙년감》 조선중앙통신사 주체93(2004)년 360페이지)

그리고 2006년 7월 12일부터 8월 14일까지 진행된 이스라엘의 레바논에 대한 폭격과 포격때에도 1 280여명의 민간인들이 살해되고 4 050여명이 부상당했다. 뿐만아니라 비행장과 발전소 등 이 나라의 31개의 주요시설들과 80개의 다리, 94개의 도로, 25개의 휘발유공급소, 900개의 기업체, 3만채의 살림집들이 파괴되었다. 전쟁기간 레바논의 총 피해액은 35억US\$에 달하였다.((조선중앙년감》 조선중앙통신사 주체96(2007)년 336페이지)

이스라엘의 침략으로 알곡생산의 30%, 기름작물생산의 80%, 남새생산의 65%, 과일생산의 65%, 집짐승의 35%, 공업시설의 48%, 상업봉사망의 54%가 집중되어있던 요르단강서안지역을 빼앗긴 요르단의 경제도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이스라엘의 침략책동은 중동지역에서 물위기도 심화시켰다.

중동지역은 원유는 많지만 물이 적은 지역으로 알려져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물자원을 확보하고 리용하는 문제는 이 지역 나라들에 있어서 사활적인 의의를 가지는 문제로 되고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주변아랍나라들의 령토를 점령하고 지상과 지하의 물자원을 독차지함으로써 이 나라들에 타격을 주고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물소요량의 67%를 강점한 아랍나라들의 수원지들에서 충당하고있는데 1990년대에 벌써 수리아와 요르단사이에 흐르는 야르무크강으로부터 매해 거의 1억m³의 물을 뿔아냈으며 남부레바논의 리타니강까지 20여km에 달하는 수로를 파고해마다 약 4억m³의 물을 뿔아갔다. 총적으로 이스라엘은 강점한 팔레스티나의 령토에서 82%의 물자원을 틀어쥐었다. 이것으로 하여 팔레스티나인민들은 농사할 물은 물론 마실 물조차 없어 고통을 겪고있다.

이스라엘은 수리아의 골란고원에서도 이 지역에 있는 물자원의 75%를 독차지하고 많은 물을 끌어가고있다.

물자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이러한 략탈행위는 주변아랍나라들로 하여금 물기근현상을 낳게 하는 주되는 요인으로 되고있다.

물의 부족으로 아랍지역의 환경보호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1994년 12월 현재 이 지역에서 사는 2억 4 000만명의 주민들중 약 4분의 1이 깨끗한 음료수를 마시지 못하고 9 500만여명이 안전한 위생조건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었다.

중동나라들은 오염을 제거하고 환경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994년부터 2004년까지 기간에만도 600억~850억US\$의 자금을 소모해야 하였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대유태제국》조작책동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건전한 사회경제발전을 크게 저해하였다.

이스라엘의 《대유태제국》조작책동의 위험성은 둘째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만이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도 커다란 위협을 조성한다는데 있다.

평전종식후 이스라엘은 아랍나라들에 비한 군사적우세보장을 구실로 막대한 자금을

군사비로 지출하여 자체의 군수공업을 발전시켰으며 고도기술무기 및 장비들을 생산하여 다른 나라들에 판매하였다.

랭전종식후 이스라엘의 군사비지출은 계속 늘어나 2008년에 이르러서는 160억US\$로서 세계적으로도 앞선 자리를 차지하였다.

이스라엘은 이 막대한 자금을 군수공업에 투자하여 전자기술에 의거하는 고도기술무기 및 장비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800여개의 회사들에서 600여종의 무기와 군사장비를 생산하였다. 그리하여 이스라엘군은 자체로 개발한 《애로우-2》미사일로 장비된 반탄도 미사일방위체계를 비롯하여 현대적인 고도기술무기들과 장비를 갖추게 되었으며 수많은 고도기술무기 및 장비들을 다른 나라들에 판매하는데까지 이르렀다.

결국 2010년에는 이스라엘의 무기수출액이 72억US\$로서 세계무기수출국순위에서 4위를 차지하게 되었다.《조선중앙년감》 조선중앙통신사 주체100(2011)년 519페이지)

더우기 엄중한것은 이스라엘이 핵무장화를 다그쳐 위험한 핵전쟁의 온상으로 되고있는것이다. 이미 랭전종식초시기 100~300개에 달하는 핵무기를 가지고있던 이스라엘은 새 세기에 이르러서는 세계적인 핵탄두보유국으로 되었다. 2002년 미중앙정보국은 이스라엘의 핵탄두 및 핵폭탄추정보유량이 200~500발이라는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세계 제5위의 핵탄두보유국이라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이스라엘의 군사력강화와 핵무장화는 아랍나라들에 대한 커다란 위협으로 되며 핵군축을 실현하고 비핵평화를 바라는 세계 평화적인민들의 념원에 대한 도전으로 된다.

호전적인 이스라엘의 군사력강화와 핵무장화가 계속되는 한 이 지역 인민들이 항시적인 전쟁위협, 핵위협을 받게 되리라는것은 자명하며 세계적인 전략자원지대, 군사전략지대로서 대국들의 리해관계가 복잡하게 엉켜있고 항시적인 충돌과 군사행동이 벌어지고 있는 이 지역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전쟁이 파멸적인 핵전쟁으로 번져지지 않는다는 담보는 없다.

3. 결 론

이스라엘의 《대유태제국》조작책동은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건전한 사회경제발전을 저해할뿐만아니라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 위험천만한 침략책동이다.

이스라엘의 《대유태제국》조작책동으로 하여 이 지역에서 발생한 방대한 수의 피난민들도 지역뿐만아니라 세계적인 판도에서 부정적영향을 주고있다.

이스라엘의 인종적박해와 탄압으로 정든 고향을 떠나 류량의 길에 나서지 않을수 없게 된 아랍인들의 수는 상상을 초월하였는데 제1차 중동전쟁으로 중동문제가 발생한 직후 약 100만에 달하던 팔레스티나피난민의 수는 오늘 500만명으로 늘어났으며 강점지역에서 살고있는 아랍인들도 언제 정든 고향땅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처지에 있다.

1996년 이스라엘의 레바논침공시에만도 이 나라에서는 40만명의 피난민이 발생하였으며 2006년 7월 침공시에는 97만여명의 피난민이 발생하였다.《조선중앙년감》 조선중앙통신사 주체96(2007)년 336페이지)

그리고 2011년 아랍나라들을 휩쓴 《색갈혁명》이후에도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군사적 침공은 수리아에서 《이슬람교국가》를 진압한다는 미명하에 감행되는 대국들의 군사적간섭으로 발생한 이 나라의 피난민수를 더욱 증가시켰다. 2017년 6월까지 수리아에서는 500만명의 주민들이 전란을 피하여 다른 나라로 피난하고 630만명이 국내에서 떠돌아

다니는 류량민으로 전락되었는데 이것은 이 나라 인구의 절반을 넘는 수자이다.

수리아에서 발생한 피난민들은 주변나라들인 튀르키예, 레바논, 요르단으로 밀려들었으며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퍼져나갔다.

밀려드는 피난민들은 주변나라들뿐아니라 유럽나라들에도 막대한 부담을 가져다주었다.

이 나라들은 피난민들에게 어떻게 식량과 주택, 의료, 교육, 취업상방조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피난민문제는 심지어 유럽동맹의 존재자체도 위협하였다. 피난민위기대응과 관련한 의견상이로 2016년에 영국이 동맹에서 탈퇴성명을 발표하였으며 폴스카와 마자르가 동맹의 피난민강제할당정책에 반대의견을 공포하였고 피난민들의 주요통과로선에 있는 발칸반도의 쓰르비아, 북마케도니아, 흐르바쯔까,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와 같은 나라들이 피난민들의 입국을 막기 위하여 자기 나라 국경을 봉쇄한것을 비롯하여 동맹의 정책수행에 영향을 주는 여러가지 난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대유태제국》을 조작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군사적도발과 침략책동으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무참히 유린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든 고향을 잃고 타향에서 방황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였다.

《아랍의 봄》으로 불리우는 《색갈혁명》의 여파로 중동지역의 정세가 악화되고 그 흐름을 타고 생겨난 《이슬람교국가》의 전쟁책동과 그를 진압한다는 미명하에 감행되는 대국들의 군사적간섭에 편승하여 저들의 《대유태제국》조작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이스라엘의 침략책동은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그러나 그 어떤 힘으로도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위한 아랍인민들의 념원,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에서 살아가려는 인류의 념원은 말살할수 없다.

비록 오늘까지 유대복고주의자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밑에 빼앗은 아랍령토에 《대유태제국》을 조작하기 위한 책동에 악랄하게 매여달리고있지만 아랍인민들의 투지를 꺾을수 없으며 이스라엘의 팽창책동이 강화될수록 그를 반대하는 아랍인민들의 투쟁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타오를것이다.

실마리어 중동사태, 《대유태제국》